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유부남의 비장하고도 유치한 '멘트' 몇 가지

유부남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록 몇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다들 똑같은 대사를 하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유치한 이 말들이 먹히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말이지만, 비장한 표정과 애절한 모습으로 멘트했을 때 나름대로 굉장한 감동을 주는 말들이죠. 유부남과 연애하는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본 말들 몇 가지에 관한 단상입니다.

“유부남은 사람도 아니냐. 사람마음은 어쩔 수 없는거다.”

유부남도 사람(?) 이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저사람 너무 알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거잖아요. 죽일수 밖에요. 이 가방이 너무나 갖고 싶네요. 사람 마음을 어쩔수 없어요. 훔쳐야지요. 성폭력범도 연쇄살인범도 자기 마음 어쩔지를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답니다. 유부남도 사람이고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다들 사람이고, 사람마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지요.

“결혼한거 한번도 후회한적 없었는데 너 알고 나서 후회했다.”

여기서 방점 찍고 형광펜으로 밑줄 찍~ 해야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도’ 후회한 적 없

다는 그 유명한 ‘한번도’~ 그 ‘한번도’ 안해본 생각을 하게 하는 운명의 상대인 바로 너! 유부남, 그들의 진부한 레파토리인 first, only 스토리는 인류 멸망의 그날까지 계속될건가봅니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 말에 분개하는건, 아니 우울해지는 건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저런 말을 내

“너랑 도망가고 싶다.”

초딩이 쓰는 하이틴로맨스 수준입니다. 혼자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마당쇠하고 마님이 만났습니까? 도망을 왜 겁니까? 복잡하게 도망까지 안가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세요. 참 쉽지요? 여러 사람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못이야?”

사람으로 한 행동이면 어떤 불법도 부도덕도 다 용서가 되는건가요? 어떤 것도 합리화가 되나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면 아동 성폭행도 근친간강도 용서해야하나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면 말입니다. 아내 때리는 남자들도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사랑해서 때린답니다. 성폭행도 사랑해서 하는 사람 많습니디. 그렇게 따지자면 스토커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본인은 아무리 사랑이여도 남의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범죄입니다. 외도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외도상대의 삶에도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게 범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범죄일까요?



뻔했을 때 저야할 책임, 꼭 따라다녀야 할 행동은 안할 것이라는게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목숨결만큼 절실한 상황도 아닌데,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아이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저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랑 도망가고 싶다.”

말만 하지마세요. 그렇게 도망가고 싶으면, 못된 사들고 와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건지, 도망가서 어떻게 살건지를 논해보라구요.

유부남은 사람도 아니냐?
넌 알고 결혼 후회했다
너랑 도망가고 싶다
사랑하는게 잘못이야?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이런 레파토리가 아직도 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먹힐거라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제가 낭만같은 약에 슬려도 없는 메마른 인간형이어서일까요?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충격 참사가 인터넷을 달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를 총격범 ‘조승희’와 ‘조승희 부모’, ‘조승희 여자친구’, ‘조승희 동영상’, 조승희가 자신의 팔에 붉은색 잉크로 쓴 ‘이스마일 액스(Ismail Ax)’ 등이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인 클릭 세례를 받았고 동명 이인 5명의 국내 미니 홈페이지 조회수가 폭주하기도 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승합차가 19일 올림픽 대로를 달리다 전복돼 멤버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4명 중경상 네티즌 관심

이날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특(24), 신동(22), 은혁(21), 규현(19) 등 멤버 4명과 매니저먼트 관계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예인들의 열애설 및 결별설도 인기 검색어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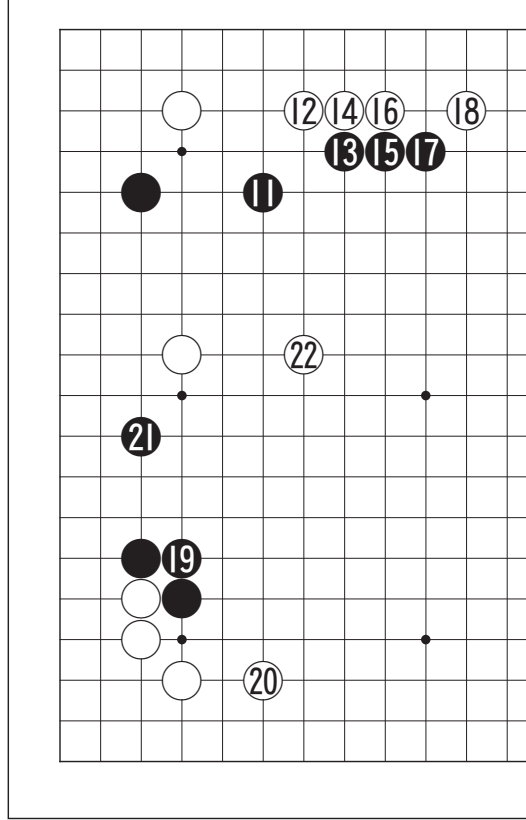
SBS ‘웃찾사’의 인기 코너 ‘따라따라’에 출연중인 개그맨 김민수(28)와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는 오민혁(여·28)이 열애중이라는 소식과 피아니스 트 겸 작곡가 이루마(29)와 탤런트 손태영의 언니 이자 동갑내기인 손혜림씨의 결혼식소식도 네티

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 인기 록그룹 버즈의 보컬 민경훈(23)과 영화배우 남호정(여·24)의 결별설도 화제를 모았다.

이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대전’에서 공개된 한국형 프라다폰, 월드스타 김윤진이 잡지 ‘스터프’(STUFF)가 뽑은 ‘세계 섹시미인 100인’의 선정, 영국의 축구스타 베컴의 성기가 드러난 전신 누드사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 스타의 보도 내용도 검색어에 올랐다.



최근 미국 3개 잡지의 ‘세계 섹시 미녀 100인’에 선정된 김윤진.



제4기 이세돌의 숙제 2보(11~22)

천자랜드배 왕중왕전 청룡부 결승전

白 온소진 3단 黑 이세돌 9단

이세돌 9단은 최근 슬럼프를 겪고 있는 이창호를 제치고 국내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최근 기성전을 방어진 박영훈과 무관으로 전락한 최철한에 비하면 4인방 중에서는 단연 발군의 활약이다.

이세돌의 약점은 기록이 심하다. 2005년에는 도요다텐소배와 후지쓰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중환배에서 준우승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으나 2006년에는 무관이었다. 올해들어 다시 도요다텐소배에서 우승했다. 실력은 세계1위에 가깝다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예전의 이창호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이세돌이 풀어야할 숙제다.

온소진 3단은 광주출신으로 이세돌과는 비슷한 기풍이다. 속기에 능하고 전투에 강하다. 작년 바둑리그에서 전신이라는 조훈현 9단을 연파하며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한 바도 있다. 전자랜드배 4강전에서는 역시 이지의 출신인 떠오르는 태양 백홍석 5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흑 11부터 17까지를 교환한 것은 이세돌의 포석구상으로 21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바둑은 속기전이기에 때문에 쉬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백 22가 깃털처럼 가볍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홍석, 신인왕전서 원성진 꺾어

백홍석 5단이 19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7기 비씨카드 신인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원성진 7단을 253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 대국 초반 좌상귀에서 흑백 서로 패싸움이 나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애감이 모자란 원 7단이 결국 돌을 거두었다.

1승1패를 기록한 두 기사가 벌이는 최종국은 오는 5월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입단 10년 이내 기사들만 출전하는 제한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굿모닝 잉글리쉬 <887>

When are you due?
당신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A: When are you due?
B: Around the end of this year.
A: Have you picked out any names?
B: Yes. John if it's a boy and Mary if it's a girl.

A: 당신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B: 대략 올해 말쯤이에요.
A: 이름은 지어냈습니까?
B: 예. 사내라면 존이라고 부르고, 딸이라면 메리라 부를거예요.

due : (출산)기일이 다 된, 지급기일이 다 된, 도착 예정인 around + 시간명사/수사 : 대략~ pick out : 골라내다
When is the phonebill due? : 전화요금 통지서 납입 기한이 언제죠?
= When is the phonebill expecting?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887>

今後、氣を付けます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A: 田中君この書類(しよるい)、誰(だれ)が作ったんだい?
B: はい、私ですが。
A: 君、この計算(けいさん)間違(まちが)ってるぞ。よく確認(かくにん)してから提出(ていしゅつ)しろって。再三再四(さいさんさいし)って言うてらるう。
B: すみません。今後、氣を付けます。

A: 타나카군 이 서류 누가 만들었지?
B: 예, 저입니다만.
A: 자네, 이 계산 잘못됐잖아. 잘 확인하고 제출하라고, 재삼제사 말했잖아.
B: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書類(しよるい) : 서류
作(つく)る : 만들다
君 : 자네, 너
間違(まちが)う : 틀리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78>

中国十大菜系之：安徽菜
중국 10대 음식 : 안휘성 음식

A: 安徽我知道，我去过黄山。
Anhui wó zhīdào wǒ qù guó huángshān
안후이에 워 즈오오, 워 쉰구어 쉰양산.
B: 安徽菜怎么样?
Anhui cài zěnyàng?
안휘이 차이 쉰더양?
A: 味道很浓，油比较多，很香。
Wèidào hěn nóng, yóu bǐjiào duō, hěn xiāng
웨이따오 혼안 농, 여우 비찌아오 푸양, 혼안 씨양
B: 你知道吗? 很多安徽菜是用木炭火慢慢儿炖出来的。
Nǐ zhīdào ma? hěn duō ānhuī cài shì yòng mù tàn huǒ màn màn er dùn chū lái de.
니 쉰다오 마? 혼안 푸어 안휘이 차이 소 용 무탄 후어 만만 쉰 쉰 라이더

A: 안휘성 알아, 니 황산에 가봤어요?
B: 안휘성 음식은 어때?
A: 맛이 아주 진해, 대체로 기름기가 많고 향기로우워
B: 너 알아? 안휘성의 음식은 솜뽕로 천천히 삶은 음식이래.

安徽菜 [Ānhuīcài] 안휘성의 음식
黄山 [Huángshān] 황산
炭火 [tàn huǒ] 솜뽕
地 [dì] (약한 불에 장시간)고, 볶 삶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04>

容易 (용이)
쉬울 용, 쉬울 이

용(容)은 집(宀)과 골짜기(谷)의 합성자이다. 집은 사람이나 곡식을, 골짜기는 초목과 양식 등을 ‘받아들인다’. 이(易)는 도마뱀의 머리모양(日)과 꼬리모양(勿)의 합성자로 ‘도마뱀’을 의미한다. 도마뱀은 위험에 처하면 ‘쉽게’ 꼬리도 자르고, 색깔도 ‘바꾼다’. 따라서 ‘용이’는 그릇이나 도마뱀처럼 ‘받아들이기 쉽다’는 뜻을 갖는다.

한나라 무제(武帝)의 총애를 받던 동방삭(東郭朔)은 그의 간언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유선생(非有先生)과 오왕(吳王)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문답을 나누는 ‘비유선생전(非有先生傳)’이란 글을 지었다. 이 글에 ‘담하용이(談何容易)’라는 말이 나온다. 비유가 오왕을 섬긴 지 3년이 넘도록 제 의견을 말하지 않자 오왕은 애가타서 뭐든 좋으니 제발 말 좀 해보라고 했다. 이에 비유는 “좋습니다. 말하기가 쉽지요(談何容易)”라며 역사 이래 임금에게 바른말 하다 죽은 충신들의 이름과 행적을 열거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여지 없겠습니까(談何容易).”라고 했다.(한서·漢書) 이처럼 ‘담하용이’란 임의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말을 삼가고 행동을 근신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뉴스퀴즈

60. 2012년 열리는 세계적인 이벤트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실사가 지난 13일 서울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과 기자회견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12일 여수 현지 점검을 포함해 진행된 이번 실사에서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말 파리에서 개최가 결정되는 이번 이벤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① 세계박람회 ② 동계올림픽
③ 세계 육상선수권 ④ 아시안 게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음 3월 4일 甲申)

子 36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득이 있으리라. 48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60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이 온다. 72년생 생경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8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을 늦추어 매수를 막아라. 행운의 숫자 : 04, 27

丑 37년생 큰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49년생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61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73년생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85년생 시비에 휘말리니 결례도 가지마라. 행운의 숫자 : 08, 45

寅 38년생 의무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편안하다. 50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62년생 사소한 일감이 있으나 예정은 새롭다. 74년생 재물이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행운의 숫자 : 05, 33

卯 39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51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보라. 63년생 상황은 어려워지만 마음은 편하다. 75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앞서 떡을 얻으니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22, 27

辰 40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52년생 직장내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 조용히 기다리라. 64년생 병은 작을 때 잡아야 한다. 76년생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35

巳 41년생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3년생 大難은 41년 금할수록 돌아가라. 65년생 구슬수에 오르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77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나 쓸 곳은 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26

午 42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하라. 54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 66년생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 78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前진을 살펴가라. 행운의 숫자 : 07, 29

未 43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55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67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79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수하인이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40

申 44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56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말을 시킬 수도 있으니 삼중삼중으로 행하라. 68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열 사람을 조심하라. 80년생 한 시가 바쁘니 前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 09, 36

酉 45년생 전정은 치열하나 군량미가 없는 형국이니 안락함을 쫓는다. 57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69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81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3, 25

戌 46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58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前을 살펴가라. 70년생 목불장군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82년생 대장과 원대리에 이상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6, 26

亥 47년생 驚衣夜行 격이니 빛이 나지 않는다. 59년생 어려움은 다행히도 지혜를 뽐냈는다. 71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83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37

www.cafe.daum.net/sajoo114 ☎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